

Art Insight #15: 마야 호프만

루마 아를 관장 · 루마 호프만 파운데이션 대표





마야 호프만은 산업가였던 에마뉴엘 호프만의 손녀이자 세계 제약계 거물인 렉 호프만의 딸입니다. 할머니인 마야 스텔린은 1933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기리며 에마뉴엘 호프만 파운데이션을 설립했고 이후 샤울라거 미술관을 통해 대중과 친숙해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의 부대표였던 마야 호프만은 70년 뒤인 2004년, 본인의 자녀 루카스와 마리나의 이름을 따 루마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예술후원자 집안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루마 파운데이션은 수많은 작가들의 글로벌 프로젝트와 전시를 후원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팔레드도쿄와 베니스비엔날레, 런던 서펀타인 갤러리의 가장 큰

뉴욕 뉴뮤지엄의 총 하나에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유명한 그가 최근 후원한 행사는 2015년 시작된 포토 런던이며, 그는 해마다 마이클 링기어, 베아트릭스 러프와 함께 폴 프로젝트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컬렉터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젊은 큐레이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위적 예술을 소개하는 취리히 쿤스트할레의 대표이기도 한 마야 호프만, 그는 2013년부터 시작한 루마 아를 건립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장르간 구분을 없애고, 적극적 협력구조를 진행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될 루마 아를은 2018년 완

후원자이기도 한 마야 호프만은 반 고흐 아를 파운데이션, 런던 테이트 모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공원에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이기도 합니다.

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쁜 그에게 미술후원에 대한 철학과 비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루마 아를은
세상의 최신 발전과 혁신적인 접근에
반응하고 어우러지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 마야 호프만 -



Q. 당신의 이름이 없는 프로젝트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제 행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루마의 새로운 헤드쿼터를 만드는 일이겠지요.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건물에 150밀리언 유로의 비용이 예상되는, 프랑스 아를에 건축하는 프로젝트 말입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성취와 스케줄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우선 중요한 두 단어, ‘파트너십으로서의 협력과 타이밍’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태도로 ‘수완’, 하나의 목표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것’이라 대답하겠습니다.

Q. 현재 계획 중인 전시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팀으로 진행할 2016년 계획을 말씀하신다면요?

아를 전시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 한 명이 기획한 그룹전이 이번 여름 선보일 예정입니다. 2명의 작가가 4개의 다른 전시를 기획해, 사진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전시입니다. 많은 갤러리 건물을 지은 뉴욕 건축사무소인 셀도르프 아키텍이 개조한, 우리의 새로운 공간 메카닉 제너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015년 런던과 파리에서 개최됐던 독립출판 페어이자 포럼인 ‘오프프린트’ 행사를 더 발전시키려고 준비 중이고, 사진축제인 ‘아를에서의 화합’에도 다시 초대받아 파르 데 아틀리에에 있는 그랜드 홀과 아틀리에 데 포르주에서 열리는 전시 중 하나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가을에는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Q. 21세기 루마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루마 파운데이션과 함께 우리는 루마 아를의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길 원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작업들을 수집하고 야심 찬 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나갈 겁니다. 환경문제와 인권에 더 깊이 관여하고, 세상을 바꾸는 주요한 변화들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루마 아를 프로젝트는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기사들에서 아를 지역에 대한 당신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에 루마 아를이 오픈하면 개관전을 어떻게 꾸릴 예정인지 직접 힌트를 주신다면요?

루마 아를은 이 세상의 최신 발전과 혁신적인 접근에 반응하고 어우러지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전시가 만들어지는데 긴 제작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Q. 호프만가인 라로슈가 그랬듯 현대자동차도 세계적으로 많은 예술가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로슈의 독지활동이 시작된 최초의 동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그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까?

라로슈는 주로 음악 행사, 클래식 작품이나 회사를 위한 커미션 미술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안점이 현대미술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겠지요. 기업 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재단은 조부모대의 컬렉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의 컬렉션은 바젤의 쿤스트뮤지엄에 전시되고 있고, 2015년부터 널리 소개되고 있는 로렌즈 파운데이션의 샤울라거 미술관에서 보존 연구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수집 바이러스'를 제게 전파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기획과 제작을 바탕으로, 단순한 수집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마 아를 프로젝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 할머니가 친분 맺었던 많은 예술가들 중에서도 아르프, 브라크, 텡겔리와 가졌던 관계들이 특히 인상 깊은데, 이제서야 그 관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한국 미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아시아 미술계에 대한 당신의 인사이트도 궁금합니다.

광주비엔날레나 한국의 여러 미술기관을 통해 한국미술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외국과 지역작가들을 소개하고 있었고 예술을 위한 풍부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미술은 주로 아시아 시장을 의도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최근 경향이 많이 바뀌었으니 제가 틀린 것일 수 있습니다. 런던 같은 현대미술 장소, 특히 테이트 모던의 컬렉션은 아시아 마켓에



Q. 현대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젊은 작가나 큐레이터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당신의 심장과 영혼이 시키는 조언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 행성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 이유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가능한 보여지는 것과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대신 당신의 고유한 방식을 즐기세요. 외부 목소리에 압도되지도 마세요. 학문의 경계를 깨려 노력하고, 여러 학문을 걸쳐서 생각했으

열려있습니다. 서구의 시선으로 보자면, 미술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초점 두지 않고, 어떻게 지리적으로 소비되고 지구화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 합니다. 세계적이기 전에 지역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반향을 노려야겠죠. 당신의 시간을 살고, 담력을 가지세요. ■ with ARTINPOST



**Installation view of <Frank Gehry: Solaris Chronicles> at Arles 2014 Philippe Parreno
<Marquee(Beaubourg)> 2009(white marquee: Collection Maja Hoffmann / LUMA Foundation)**

The exhibition was commissioned and produced by the LUMA Foundation for the Parc des Ateliers, Arles

Photo: Michael Alberry Photo credit: Maja Hoffmann

Profile



The photo credit is: Wolfgang Tillmans

아트리뷰가 선정한 '세계예술계 2015 파워피플 100인' 중 20위로 선정된 마야 호프만은 파리 팔레트도쿄와 베니스 비엔날레, 런던 서펀타인 갤러리의 가장 큰 후원자로 반 고흐 아를 파운데이션, 런던 테이트갤러리, 뉴욕 뉴뮤지엄,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공원의 큰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이사이기도 하다. 2004년 루마파운데이션을 설립했고, 2013년 루마 아를을 설립해 2018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취리히 쿤스트할레의 대표이사 에마누엘 호프만 파운데이션의 부대표이다.